觀 수행의 시작은 '無常觀' 서부터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 본문에서는 지(止)를 닦으면서 동시에 관(觀)을 닦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지관쌍수(止觀雙修)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止)만 닦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혹 해태를 일으키거나 온갖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대비를 멀리 여의게 된다. 그러므로 관(觀)을 닦아야한다. 관을 닦아 익히는 자는 마땅히 일체 세간의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위법(有爲法)이 오래 머무는 것이 없이 잠깐 동안에 변해 무너지며, 일체 마음의 움직임이 찰나찰나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괴로운 것이라 관하며, 과거에 생각하던 모든 법이 황홀하여 꿈과 같다고 관하며, 현재 생각하는 모든 법이 번갯불과 같다고 관하며, 미래에 생각할 모든 법이 마치 구름과 같아서 홀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관하며, 세간의 일체 존재하는 몸이 모두가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도 즐길 것이 없다고 관해야 하느니라."

지(止:samatha)와 관(觀:vipasyana)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관을 닦는 기초를 제시하였다. 지(止)만 닦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게을러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대비의 이타행을 등한시 하는 폐단이 생긴다. 그러므로 관을 닦아야 하는데, 먼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有爲法)은 하나도 영구불변한 것이 없으며, 쉬지 않고 생성파괴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 관찰한다. 이를 무상관(無常觀)이라 한다.

다음으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행위도 순간에 생겨났다 순간에 없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모두 괴로움에 불과하다는 고관(苦觀)이 있다. 또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걸쳐 생각하는 모든 사념은 어느 것 하나 절대적 자주성을 지닌 실체가 없는 것이며(無我), 과거의 것은 꿈과 같고 현재의 것은 번개와 같고 미래의 것은 구름과 같아 별안간 나타나는 것이라고 관하는 무아관(無我觀)이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관은 세상의 육체적 존재는 모두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온갖 종류로 더럽혀져 있는 것이라 하나도 즐길 만한 것이 못된다고 관찰하는 부정관(不淨觀)이 있다.

이 네 가지 관은 현실세계의 실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법상관(法相觀)이라 한다. 이 법상관을 통한 윤리적 실천을 위한 다음 단계의 관을 대비관(大悲觀)이라 한다.

일체 무상에 대한 관찰이 '무상관'
止와 觀을 동시에 바르게 닦아야

"관을 닦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일체 중생이 시작을 알 수 없는 세상부터 모두 무명의 훈습으로 인해 마음이 생멸해서 이미 일체 몸과 마음이 큰 고통을 받았고, 현재에도 한량없는 핍박이 있으며, 미래의 괴로움도 또한 한정이 없어서 버리기도 벗어나기도 어렵거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중생들이 이처럼 매우 불쌍하다 여겨라.

이렇게 생각하고 곧 용기 있게 큰 서원을 세워서 내 마음의 분별을 여의고 시방에 두루 일체 모든 착한 공덕을 닦아 미래 겁이 다하도록 한량없는 방편으로 일체 고뇌 중생을 구원해 열반의 가장 으뜸가는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하라. 오직 앉아 지(止)에 전념할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응당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펴야 한다."

중생에 대한 대비관을 쓰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먼저 중생들의 딱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다. 무명의 훈습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갖 고통을 받게끔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없는 핍박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도 받아야 할 고통이 일정한 선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차별적인 대립의식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큰 서원을 세워 중생에게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착하고 좋은 일을 다 하며 모든 고통의 극복과 평화의 성취를 실현하고자 대외적 봉사를 사양하지 않고, 지(止)에 전념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항상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인지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즐거움이 보시의 보답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㉞ 오묘한 과보

諸來求欲皆使隨意。使稱本望名善施主。不能稱彼本望雖復大富名貧窮者。富者雖與無悲愍心。名曰與不名施主。悲愍心施是名施主。若不食 亦無有果報。施雖與不名為施。無悲心施雖與不名為施。有悲心者雖復不施名之為施。若求報施者名為施者。商買之人亦可名施。若求報施果報猶尙無量。況有悲心不求報施果報何可稱計。若求報施唯可自樂。不能救濟徒自疲勞。悲心施者能有救濟。後得果時能大利益。(제래구욕개사수의。사칭본망명선시주。불능칭피본망수부대부명빈궁자。부자수여무비민심。명왈여불명시주。비민심시시명시주。약불식담무유과보。시수여불명위시。무비심시수여불명위시。유비심자수부불시명지위시。약구보시자명위시자。상가지인역가명시° 약구보시과보유상무량。황유비심불구보시과보하가칭계。약구보시유가자락。불능구제도자피로。비심시자능유구제。후득과시능대이익。)

번역

모든 구걸하는 이가 와서 모두 뜻대로 욕심껏 구해도 본래 바라는 대로 주면 착한 시주자라고 부르나니, 그 본래 바라는 대로 줄 수 없으면 비록 다시 큰 부자여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비록 줄지라도 자비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름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시주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자비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시주라고 부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부른 과보가 없듯이 보시하고 비록 주어도 보시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없는 보시는 비록 주어도 보시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비심 있는 사람이 비록 다시 베풀지 못해도 보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보시에 대한 보답을 바라서 보시자라고 부른다면, 장사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역시 보시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만약, 보시에 대한 과보를 바란다면, 과보는 오히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비심 있으면서 보시의 보답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과보를 어찌 칭량하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보시의 보답을 바란다면 오직 스스로 즐거운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만 자신의 피로조차 구제하지 못합니다. 자비심의 보시라야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니, 후에 과보를 얻을 때 능히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해설

과보는 오묘합니다. 마치 꽃과 같습니다. 꽃은 열매가 되고, 때론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씨앗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 있다면 어떨까요. 꽃은 꽃이되 벌,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 꽃이라면 어떨까요.

자비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보시가 열매나 씨앗을 맺지 못하는 꽃과 같을 것입니다. 벌,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 꽃은 향기와 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비심은 보살의 향기이자 꿀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 부유할지라도 자비심이 없다면 그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제바라보살은 말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주는 것은 보시라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살은 인과법을 잘 아는 이입니다. 인과법을 알기에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몰아오면 비가 내리고, 대지가 그 은혜로운 비로 적셔지면 산천에 초목이 자라고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억지스러울 게 없습니다. 탐심을 인연으로 하여 험난한 파도가 일렁이는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반야용선이 있다면, 바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진리의 북을 울리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다양하게 펼쳐 보여주는 노정기(路程記)이다. 승려를 포함한 불자(佛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경전 밖의 구걸문화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정신을 흐리게 하여 어지럽히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이 판을 치고 있다.

불교TV에 광고로 등장하는 사찰과 그 사찰의 주지 스님은 한 가지 소원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험 있는 사찰, 소원성취와 영가(靈駕)의 천도도량임을 침이 마르도록 선전한다.

또한 외국 승려까지 등장해 경전에도 없는 내용을 극락, 지옥으로 양분해 금방이라도 복 받고 벌 받을 것처럼 말장난을 늘어놓는다. 승복도 법복도 아닌 셔츠 하나 달랑 걸친 채. 거기다가 TV의 일요법회는 몇몇 스님을 제외하고는 표현과 논리를 갖추지 못한 채 처음도 중간도 마무리도 경전 밖으로 떠돌다 허무심으로 논리와 표현을 갖춰 처음도 중간도 끝도 개운하게, 진솔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스님들의 법보시(法布施)는 알곡이 드문 빈 쭉정이뿐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엇을 일깨워 주기 위함인지 메시지 전달이 되질 않는다. 처음부터 길을 못 찾고 중간에서 헤매며 끝마무리는 설법자도 듣는 청중도 어색한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리는 것이다. 개운한 법문은 가뭄에 콩 나듯 만나기 어렵다.

경전에 담긴 내용을 마음으로 녹여야 메아리도 울림도 메시지도 전달되는 법이다. 설법자가 헤매고 흔들리며 오락가락하면 청중은 감흥을 잃고 자리를 뜨고 싶다. 차라리 한 권의 교양서적을 읽는 게 도움이 되겠다며 신앙접근을 스스로 자책하며 멀어질 터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시험에 떨어져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대개는 재수생 시절에 몸과 마음을 다 잡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삼수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 터이다. 그

현실 타협하는 문화가 불교를 저해
사람을 키우는 불교가 미래의 희망

의 그림자처럼 막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 불교의 대표종단은 조계종이다. 그렇다면 부양가족도 없을 터인데 사찰경제를 앞세워 어지간히 공덕 불교, 복짓는 신앙을 강요하듯 풀어댄다.

무비 스님처럼 〈화엄경〉 세계를 펼쳐 보이고 종범 스님처럼 경학(經學)의 세계를 친절히 알려주며 월암 스님처럼 선학(禪學)의 세계를 간절하게 일깨워 줄 수는 없는지 아쉬움이 긴 그림자로 남는다.

종교도 경쟁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터이다. 바른 신앙만으로는 다양한 바람의 욕구와 눈높이에 흔들릴 수도 있을 터이다. 경전의 내용이 진제불교(眞諦佛敎)와 세제불교(世諦佛敎)로 나눠지듯 방편설의 끌어당김과 알아차림도 중생교화에 큰 몫을 담당할 터이다.

그러나 타력신앙(他力信仰)이 자력신앙(自力信仰)으로 승화하여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인불사상(人佛思想)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물론 타력과 자력이 둘이 아니고 진제와 세제가 둘이 아닌 하나이지만 신앙은 사닥다리에 오르듯 하여 시야를 넓히는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법자는 경전과 어록을 중

런데도 한국 불교의 불자(佛子)들은 10년, 20년을 재수·삼수하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걸음을 즐기고 있다.

누구의 탓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법보시 측에 서 있는 스님들의 몫일 터이다.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현실과 타협하며 사찰 경제를 앞세우는 구걸문화가 바른 불교, 바른 신앙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을 짓고 탑을 세우는 일보다 인재를 기르는, 사람 중심 불교가 미래의 밝은 빛이요 희망이 될 터이다.

승려는 우월하고 신도는 열등한 게 아닌데도 승려는 의례히 대접받는 문화가 뿌리가 깊다. 승려는 수행자일 뿐 해결사가 될 수 없음에도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목탁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양심에 털 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이제는 제발이지 앉아 있는 불교에서 서서 움직이는 불교로,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끌어당김의 불교에서 알아차림의 불교로, 방편불교에서 진리불교로, 첫째도 수행, 둘째도 수행, 셋째도 수행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진리의 북을 울리는 주인공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법인등록번호 : 205421-0000520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 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각 지역 교구장,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인감증명서 2통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여권사진 규격)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2)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2자 ▶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